고가도로 꽁꽁… 차량 엉금엉금

8일 오후 낮 최고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맹추위 속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자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를 지나는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낮 山賊

광주 어등산 등산로서 60대 女 폭행·돈 뺏겨

대낮에 광주의 한 야산 등산로 입구에서 60대 여성이 강도피해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대학 뒤 어등산 등산로 입구에서 산책중이던 A(여·67)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4만원을 빼앗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도용의자가 어등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일대에 경찰을 투입, 강도 용의자를 쫓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원참 〈8498〉 김종두

총인시설 일부 심사위원, 업체와 사전 접촉 파장

"만난 건 사실… 돈은 안 받았다"

총인저감시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참여 업체들이 설계분과위원회 일부 심사위원들을 사전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기업들의 로비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심사위원 명단 및 점수 등을 공개한 것이 되레 공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커 제도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00억원대 총인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한 금호(한양·우미·서령)·대림(중흥·남해·태영·혜성)·코오롱(포스코·상명·테크)·현대(남광·한라산업)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시공사 선정 전에 수시로 광주시청 내 사무실을 드나들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에게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심사위원은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오니 안 만날 수가 없었다"며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으며 녹취록이나 문건에서처럼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로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업체 관계자가 사전 접촉을 시도했으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B심사위원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어 말할 수 없지만 연락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만나는 것 자체가 부탁하러온 것이기 때문에 피했다"고 말했다. C심사위원도 "만나면 보고하게 돼 있어 아예 전화 연락도 안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심사위원들은 모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대로 금품이나 접대, 향응을 받은 적은 없으며, 다만 내부지침 성격으로 정해둔 '사전접촉 금지'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만 어쩔 수 없이 어겼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정 후 금품·접대·향응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참여자치 21이 광주지검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광주시 기술직 공무원은 시공사가 된 대림산업 관계자를 만나 청탁을 하기도 했다. 또 광주시가 시공사 선정 후 대림산업 컨소시엄에 1위를 준 심사위원들을 전격 해촉한 것도 업체 관계자들을 사전접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에는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분과위원장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하며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분과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업체와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명단과 점수가 공개되는데 금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 접촉 사실은 인정했으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 '일진회' 와해 착수

중·고교 실태파악 나서 학교별 담당형사 지정

경찰이 학교폭력의 핵심인 폭력서클 '일진회'를 소탕하기에 앞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학교별 일진회 현황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달 13일까지 중학교 3075개교, 16일까지 고등학교 2264개교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진회 현황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 학교별로 담당 형사를 지정해 일진회의 실질적인 와해를 유도하기로 했다. 담당 형사는 주 1회 이상 관내 일진회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학교·학부모와 협조해 일진회 등 불량서클 회원을 자진 탈퇴시킬 계획이다. 일진회 구성원을 상대로 '자진탈퇴서'를, 보복 폭행 사건이나 재범인 경우 '재발방지 다짐서'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헌팅남 속옷까지 훔친 20대 여대생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8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남성의 금품 등을 훔친 여대생 김모(2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조모(27)씨의 지갑, 스마트폰, 점퍼, 속옷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훔친 지갑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기 등 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집에서 '헌팅'으로 처음 만난 조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했는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귀찮게 하자, 조씨의 양말만 남긴 채 모든 물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학교폭력 엄마들이 나섰다

북구 주부순찰단 850명 우범지역 조별 순찰 강화

엄마들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나섰다.

광주시 북구는 8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주부순찰단 등 자생단체와 연계해 집중 순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알몸 졸업식 동영상 유포 등 뒤풀이 예방과 신학기 초 증가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실시된다.

북구는 우선 동별 간담회를 통해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빈집 등 학교폭력 우려지역을 선정하고 주부순찰단의 조별 순찰 및 지구대, 파출소, 자율방범대 등과 연계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주부이자 엄마들로 구성된 주부순찰단은 주변 생활공간을 잘 파악하고 있어 예방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북구 주부순찰단은 지난 2008년 6월 구성돼 주부 8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평소 아동지킴이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구청, 사유지에 녹색길 조성 논란

소유주 동의없이 서창동 백마산 일대에

광주시 서구청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창동 백마산 사유지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녹색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는 소유자가 출입을 통제하거나 공공시설의 철거를 요청할 경우 조성된 녹색길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8일 서구청에 따르면 행안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국비와 시·구비 등 모두 5억원을 들여 전평호수에서 백마산 산책로, 서창향토문화마을, 영산강 옛 서창포구에 이르는 총 3.6㎞ 구간에 폭 1.6m의 '영산강 서창포구 탐방 녹색길 조성사업'을 시작, 오는 18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등산로를 정비해 정자, 의자, 목재흙막이, 데크, 로프펜스,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구는 도심 내 등산로와 영산강 수변을 연결하는 생태 접근로를 개설하여 탐방객이 남도의 문화를 둘러보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서구가 조성중인 녹색길 가운데 전평호수에서 출발, 백마산을 통과해 서창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약 2㎞ 구간 중 일부는 사유지로, 서구가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매각한 땅이다.

현행 산림법에서는 타인의 임야를 사용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서구는 2필지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고 30여필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없이 고시만 한 상태다.

또 녹색길이 조성된 구간중 구유지에 해당하는 서구 서창동 산55-1 7만7366㎡ 등 필지 14만4501㎡도 매각을 추진중인이다. 서구는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공고를 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최초 34억7500여만원에 이르던 예정가격을 40%나 줄여 20억6300만원에 공고를 내는 등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부지 매각을 위해 녹색길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부지마저 매각되면 백마산을 통과하는 녹색길은 모두 사유지에 해당한다.

결국 소유자가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소유권을 내세워 산책로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면 서구는 시설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어 수억원을 들여 조성한 녹색길이 끊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영산강 서창포구 탐방 녹색길은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이 연결된 최적의 장소다"며 "임야의 특성상 경계가 모호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채무자 폭행 조폭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지인의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2)씨 등 군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2시께 군산시 신용동의 한 사무실에 지인 한테 빚을 진 박모(23)씨를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새벽 5시30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여관에서 박씨를 둔기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조폭 두목 판돈 20만원 화투치다 입건

쌍나팔

○…광주지역 유력 폭력조직의 두목이 판돈 20여만원을 걸고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수모(?).

○…광주 북부경찰은 기원에서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도박)로 광주 K파 두목 김모(53)씨를 8일 불구속 입건했는데, 김씨는 지난 4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기원 사무실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판돈 21만원을 걸고 속칭 '3·5·7·9 고스톱판'을 벌인 혐의.

○…도박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가 아버지의 병원 입원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기도 했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들과 심심풀이로 한 것일 뿐 상습도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졸업시기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다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3월2일